

# 순백(純白)의 꽃나무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추천  
3

## 3. 쪽동백나무

### (1) 계통과 자연분포

쪽동백나무는 피자식물강(被子植物綱, Angiospermae) 감나무목(目, Ebenales) 때죽나무과(科, Styracaceae) 때죽나무속(屬, *Styrax*)의 낙엽활엽교목(落葉闊葉喬木)으로서 한국, 중국(만주), 일본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전역의 산림에 분포하는 수종으로서, 주로 숲 가장자리나 계곡의 물기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 요구도가 높은 양수이지만 약간의 음지에도 자생한다. 우리나라에는 쪽동백나무를 포함하여 지리산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사종 좁쪽동백과 변종 흰좁쪽동백 3종이 있다.

### (2) 이름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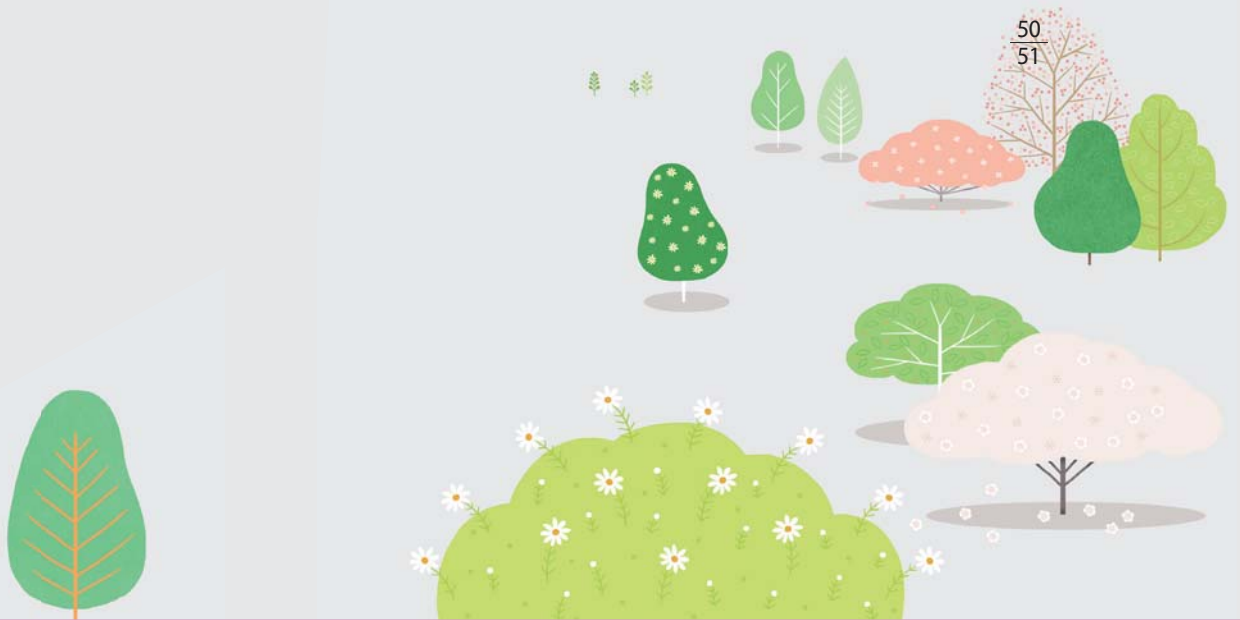
#### ① 쪽동백나무

- 학명 : *Styrax obassia* Siebold & Zuccarini
- 영명 : Fragrant Snowbell
- 한명 : 玉鈴花(옥령화)
- 국명 : 쪽동백나무(쪽동백), 개동백, 정나무, 산아주까리나무, 왕때죽나무

#### ② 학명과 일반 명 - 커피 향 은방울 꽃

쪽동백나무의 속명 *Styrax*는 때죽나무와 마찬가지로 「안식향, 편안한 향기」라는 뜻이다. 「안식향」에 관해서는 때죽나무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때죽나무속(屬) 안식향나무(*Styrax benzoin*)에서 얻는 향료의 일종이다. 이 향료는 향기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사악한 기운을 쫓아낸다.」라고 믿는 물질이다. 때죽나무와 쪽동백나무에 *Styrax*가 붙은 것도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뜻이다.

쪽동백나무의 영어 이름은 Fragrant Snowbell(프레그런트 스노 벨)이다. Fragrant(프레그런트)란 와인의 맛과 향을 테스트 하는 용어로서, 뛰어난 맛과 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또 갓 볶아낸 커피 향을 표현하는 말이



기도 하는데, 쪽동백나무의 영명(英名) Fragrant Snowbell(프레그런트 스노 벨)이란 매혹적인 향기가 나는 눈송이처럼 하얀 종(鐘)이라는 뜻이다. 가지에 조롱조롱 달린 꽃과 열매가 마치 향기롭고 청량한 소리가 나는 은방울처럼 보이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명 玉鈴花(옥령화) 또한 유사한 표현이다. 玉은 「구슬 옥」, 鈴은 「방울 령」이라는 글자다. 연녹색의 열매는 옥색 구슬을 닮았고 가지에 달린 하얀 꽃 또한 은방울과 같아 금방이라도 상그러운 종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 ③ 한국 명 - 쪽동백나무(쪽동백), 개동백, 정나무, 산아주까리나무, 왕때죽나무

쪽동백나무는 때죽나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따라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쪽동백나무」라는 이름은 동백기름(동백나무 기름)과 마찬가지로 열매에서 기름을 짜 등잔기름이나 옛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 사용했는데서 얻은 이름이다. 「동백나무」는 내한성이 약해 남부와 남서부 해안가에 자생하는 수종으로서 내륙이나 중부, 그 이북의 지방에서는 월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륙지방에서의 동백기름은 구하기 어렵고 비싸서 「쪽동백기름」을 썼는데, 이것에서 비롯되어 '가짜, 반쪽, 썩 대신 닮'이라는 뜻이 담긴 「쪽동백」 또는 「개동백」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또 「정나무」라는 이름도 있다. 이는 정유(精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식물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휘발성 기름인데, 일종의 방향성 화합물이다. 이 향기로운 기름이 쪽동백나무 열매에서도 나와 깨끗이 정제한, 딱딱한 종자에서 짜내어 골수의 뜻이 담긴 정(精)에 나무가 붙어 「정나무」가 된 것이다.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도 사용된 「정나무」는 情(정)의 나무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情)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기름 발라 곱게 빗어 단장한 여인의 마음처럼 두 글자 모두 순수함이나 따뜻한 사랑의 뜻이 담긴 정(精)과 정(情)에 나무가 붙어 「정나무」가 된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1년생 초본류 「아주까리」처럼, 재배하지 않고도 산에서 얻는 기름이라 하여 「산아주까리나무」라고 불렀다. 아주까리는 「피마자」라고도 하는데 기름을 짜 등잔기름, 식용, 약용이나 공업용으로도 썼으며 농가주변에서 흔히 발견되었던 식물이다. 봄의 전령 생강나무 열매 기름도 머릿기름이나 등잔기름으로 사용하였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에서는 지금도 생강나무를 「동박나무」라고 부르며, 열매에서 짠 기름을 「동박기름」이라고 한다.

쪽동백나무를 「왕때죽나무」라고도 부르는 것은 때죽나무보다 잎이 큰 것에서 붙은 이름이고, 「쪽동백」은 기름을 짜는 동백나무 열매보다 작은 데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쪽」이란 단어가 '작은, 쪼개진 한 부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또 「쪽」이란 '쪼개진 한 부분, 갈래'라는 뜻에서 유추하면, 쪽동백나무의 잎은 특이하게도 가지에서 양 갈래로 마주보듯 달려있다. 가지 끝에 1개의 큰 잎이 달리고, 그 아래 작은 잎 2개가 마주보듯 달린다. 이 모습은 마치 앞의 큰 잎은 머리고, 뒤의 작은 잎 2개는 쪽을 땀은 소녀의 머리 갈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참으로 풍부한 감성의 눈을 가졌다.

■ 쪽을 찢은 소녀의 갈래 머리 닮은 출엽 I



■ 쪽을 찢은 소녀의 갈래 머리 닮은 출엽 II



### (3) 형태적 특징

#### ① 수형. 줄기와 가지 - 원개형. 매끈한 수피

수고 10m에 이르는 낙엽활엽교목으로서 수관 상부가 평평한 원형을 이루는 원개형(圓蓋形)의 수형을 이룬다. 수피는 얇고 매끈하여 고우며, 짙은 회색이어서 검게 보이는데 세로로 가늘게 갈라진다. 갈라진 틈은 황갈색 줄무늬처럼 나타난다.

당년 생 어린가지는 녹색이고 2년생 가지는 홍갈색이며 표피가 세로로 얇게 벗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눈(冬芽)은 비후한 잎자루 기부에 둘러싸여 있다.

가지는 사리 빗자루처럼 묶여 빗물받이 용도의 「죽낭」으로 쓰였고 조금 굵은 가지로는 옷을 만들었다. 목재는 결이 치밀하고 고와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조각재로 쓰인다.

■ 쪽동백나무 수형



■ 쪽동백나무 수피





## ② 잎 - 어긋나기, 대형 엽

잎은 어긋나기(互生)하며 원형~넓은 타원형으로서 끝이 뾰족한 예두~급한 점첨두 이고(銳頭~漸尖頭) 밑 부분은 둥글다. 길이 10~20cm, 폭 8~20cm인 대형의 잎이고 가장자리에는 얇은 거치(톱니)가 있는데, 상반부에만 있기도 하다. 표면은 녹색 이고 엽맥 위에 털이 있다. 뒷면은 흰색의 성모(星毛, 여러 갈래로 갈라진 별 모양의 털)가 있어 희게 보인다. 잎자루는 길이 1~2cm로 짧고 기부가 약간 융기하듯 넓어져 동아(겨울눈)를 감싼다.

쪽동백나무의 출엽 형태는 가지 끝에 1개의 큰 잎이 달리고, 그 아래 작은 잎 2개가 조금 어긋나지만, 마주보듯 달린다. 이 모습 마치 소녀의 쪽진 머리 갈래를 닮았다고 한다. 잎은 향기가 있고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든다.

### ■ 가장자리에 불규칙 얇은 거치가 있는 잎



### ■ 상반부에만 얇은 거치가 있는 잎



## ③ 꽃과 열매 - 꽃(양성화, 총상화서). 열매(핵과, 난원형~타원형)

꽃은 흰색의 암수한꽃(양성화)으로서 5~6월에 새 가지 끝에 길이 10~20cm의 총상화서(總狀花序, 긴 꽃대에서 꽃자루가 나와 밑에서부터 피는 꽃차례)로 핀다. 작은 꽃자루(小花梗, pedicel)는 길이 8~10mm이며 털(星毛)이 있다.

화관(花冠, corolla)은 지름 2cm의 통꽃으로서 5개로 깊게 갈라지고 겉에 털이 있다.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고 종처럼 밑으로 처지면서 20여 송이가 조롱조롱 달린다. 꽃받침은 5~9개로 갈라지고 암술 1개에 수술은 10개이며 털이 없고 꽃밥(藥, anther)은 노랗다.

열매는 길이 2cm, 폭 8~10mm의 달걀 모양 원형(난원형)~타원형의 핵과(核果, drupe, 복숭아, 매실처럼 과육 안에 단단한 종자가 있는 열매)로서 성모가 있어 연녹색으로 보인다. 9월에 익으며 과피(果皮)가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옥령화(玉鈴花)라고 하여 요충을 구제하고 종기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쓰인다고 한다.

## (4) 쪽동백나무, 흰쪽동백나무 - 소형의 잎

쪽동백나무의 유사종 쪽동백나무(*S. shiraiana* Makino)와 흰쪽동백나무(*S. shiraiana* var. *discolor* Nakai)는 수고, 잎의 크기와 모양, 잎 뒷면 성모의 밀도 등의 차이로 종과 변종으로 구별한다.

■ 쪽동백나무 꽃



■ 쪽동백나무 열매



좀쪽동백나무는 수고 3~5m의 관목으로 취급되는 나무로서 쪽동백나무 잎보다 조금 작은 길이 5~8cm, 폭 4~7cm(쪽동백나무 : 길이 10~20cm, 폭 8~20cm)의 마름모꼴 원형(쪽동백나무 : 원형~넓은 타원형)이다. 가장자리 상단에는 불규칙하고 거친 톱니가 있고 뒷면에는 성모가 있다. 총상화서의 길이는 3~6cm 정도로서 짧아(쪽동백나무 : 10~20cm) 꽃이 적게 달리고, 화관은 1/3쯤에서 5개로 갈라진다. 꽃송이가 달리는 작은 꽃자루 또한 3mm 정도로서 짧다. 변종 흰좀쪽동백나무는 잎 뒷면에 흰색 털이 밀생한다. 그런데, 이 모든 차이는 3종 모두 한곳에 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비전문가로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5) 생리·생태적 특성 - 양수, 적응지

쪽동백나무 생육적지는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로서 토양수분이 적정하고 물 빠짐 또한 양호한 곳이다. 모든 나무는 비옥한 토양에서 생장이 좋다. 쪽동백나무 또한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지만 적응한 곳이면 무난한 생육을 한다.

생장속도는 다른 활엽수류와 비슷한 보통의 성장을 하고, 양수이지만 음지에서 견디는 능력이 있다. 산림에서는 큰 나무 밑에서도 자라는데, 햇빛이 있는 숲의 가장자리 반음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내한성과 내염성이 강하여 전국의 산림과 바닷가 숲에서도 자생한다. 이식은 다소 어려운 편이나 내공해성, 내병성이 강해 도시공원 조경수로 알맞다.

■ 표1. 생리·생태적 특성

내 한 성	강	내 염 성	강	전정 적응력	강
내 건 성	약	내공해성	강	이 식 력	약
내 음 성	중~강	맹 아 력	강	생장속도	보통

## (6) 번식과 유지관리

### ① 번식 - 종자번식, 포트 재배

주로 종자로 번식시킨다. 종자번식에는 봄이나 가을 직파, 노천매장 후 직파, 포트(pot) 파종 등의 방법이 있다. 가을에 채종 후 냉장 보관하였다가 봄에 파종하거나 가을에 직파 또는 노천매장을 하였다가 봄에 파종한다. 때죽나무보다 발아율이 높아 종자의 대부분이 발아한다.

발아 성공률은 포장에 직파하기 보다는 포트(Pot) 파종이 높다. 농업용 또는 원예용 상토를 채운 포트에 2~3알씩 심어 노지에 둔다. 이때 포트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트의 종자가 싹이 트고 줄기로 자라면서 잎이 3~4장 나오면 배추 모종 심듯이 포장에 옮겨 심는다. 포트에서 묘목을 빼낼 때 장래 묘목으로 키울 대상 1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리고 심는다. 나머지 묘목을 자르지 않고 뿌리가 잡고 있는 개량토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어도 된다.

삼목은 당년에 새로 나온 가지를 삼수로 이용하는 녹지삽(綠枝挿, greenwood cutting)을 하거나 삼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열매가 달렸던 2년생 가지를 붙여 녹지와 숙지를 겸하여 삼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아율이 좋기 때문에 삼목으로 묘목을 얻기보다는 종자번식이 오히려 유리하다.

### ② 이식과 전정 - 적습지, 줄기감기

#### ■ 식재

이식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적습지에 식재된 나무는 활착이 좋다. 공원, 수목원이나 골프장의 경우 평지에 식재하되 토양수분이 적당하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 좋다. 언덕의 경우 상단부보다 중하단부 이하 지대에 식재하여 가급적 수분부족을 겪지 않도록 한다.

#### ■ 유공관 매립

식재당시 구덩이에 나무를 앉힌 다음, 뿌리분 가장자리 3~4방위에 유공관을 붙이고 매립한다. 유공관은 외부공기를 지중으로 유입시켜 뿌리권에 산소를 공급하고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써 발근이 촉진된다. 또 유공관을 통해 관수하면 물이 구덩이 바닥까지 공급되는 지중관수 효과가 있다. 지중관수는 구덩이의 함수상태를 높임으로써 발근율이 높아지고 활착이 빠르다. 유공관의 입구는 지표면보다 보다 조금 높게 노출되도록 매립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마개로 느슨하게 막는다.

#### ■ 관수와 구덩이 보습력

나무를 심을 때에는 구덩이 바닥에 보습용 개량토(유기질비료, 농업용이나 원예용 상토 : 흙 = 1 : 1 혼합)를 넣고 그 위에 나무를 앉힌다. 나무를 앉히고 나서도 뿌리분과 구덩이 사이의 공간에 개량토를 채워 보습(保濕)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 또는 식재 방법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식목의 생사는 수분공급의 적정성 여부가 90% 이상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관수를 할 때에는 구덩이 바닥과 그 주변에까지 함수상태가 되도록 하고, 구덩이의 보습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중관수 또는 유공관 매립 관수를 하고 멀칭을 하여 지표면 증발을 억제한다.

#### ■ 줄기감기

구덩이에 나무를 앉히기 전 줄기감기를 하여 피소(皮燒, sun scorch, 고열의 직사광선에 내 수피가 손상되는 현상), 상열(霜裂, frost crack, 겨울 밤낮의 기온 차이에 수피가 세로로 터지는 현상)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꼭동백나무는 수피가 얇아 줄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고열에 의한 관다발 조직(체관, 형성층, 물관) 파괴로 수분이동과 양분전류가 차단되어 나무가 고사한다. 그러므로 꼭동백나무를 포함하여 수피가 얇은 나무는 모두 줄기감기가 필요하다. 줄기감기는 구덩이에 나무를 앉히기 전 눕혀진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편하다.

## ■ 전정

때죽나무와 마찬가지로 전정은 지하고(枝下高, clear-length)를 높일 목적 외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녹음수, 가로수, 통풍 등을 제외하고는 지하고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지하고가 낮은 나무일수록 내풍성이 강해 비바람에 전복되는 피해가 적다. 그러므로 꺾인 가지, 찢어진 가지, 병해충 피해지 등을 제외하고는 전정하지 않아도 된다.

## ■ 표3. 유지관리

전 정	필요 시 (꺾인 가지, 찢어진 가지, 병해충 피해지 등)	적 합 지	함수상태가 좋은 사질양토 (경사지 하단)
시 비	필요 시 (부산물·유기질 비료 : 가을~월동기) (화학비료 : 생육기)	병 해 충	때죽납작진딧물(흡즙성 충영해충) 나무좀류(종실해충) 바구미류(종실해충)

## (7) 공원, 골프장, 수목원 조경소재로서의 이용

### ① 공원, 골프장

쪽죽백나무는 때죽나무와 동일한 용도 및 식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나무다. 공원, 골프장, 수목원, 기타 시설 토지에서는 가급적 소 이동로 주변에 배식하여 꽃, 잎, 열매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잎이 크고 수관밀도가 높아 햇빛 차단효과가 크므로 독립수, 2~3주씩 소군식하는 녹음수로도 적합하다. 골프장의 경우, 파3 홀의 대기 공간에 배식하면 좋다. 이 경우, 앞 홀과 다음 홀 간의 이동로가 길어야 한다. 다음 홀로 이동하는 골퍼들의 휴식 잡음이 티샷(tee shot)하는 골퍼에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② 수목원

수목원에서는 산책로 주변의 휴식공간에 식재하고 나무 밑에는 2~3인용 벤치(bench)를 설치하면 어울린다. 또 준 산림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하므로 가급적 햇빛과 수분부족을 적게 겪는 지형에 배식한다.

쪽죽백나무가 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숲 가장자리에 터를 잡고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 자생하고 있다. 숲 가장자리는 햇빛 경쟁이 숲속에서보다 적고, 경사가 끝나는 곳이기도 하여 건조기에는 상부 경사면보다 토양수분이 더 오래 머문다. 그러므로 나무를 배식할 때에도 이런 점들을 착안하여 식재하면 활착률이 높고 식재 목적 발휘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김호준 박사  
그린과학기술원 원장